



## 합성수지업계



김 세 환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상임고문

# 기술집약형 기업 육성

희망찬 임오년을 맞이하여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소원하는바가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IMF라는 보기드문 타격으로 많은 위축을 받았고 경제지표상 IMF이전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체감경기로는 불경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장 불안하게 여겼던 외환보유가 1,000억달러로 외환사정이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민간소비가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영향으로 수출 둔화와 내수 경기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저성장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새해에는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세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가운데 합성수지제품 동향은 석유화학메이커들이 내수 부진 대응책으로 수출촉진판매전략을 강구하고 있으나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 유가 불안에 따른 원자재가 불안요인으로 수급 안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건축경기 위축과 산업용자재 수요감축 등 내수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기,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관련산업 성장과 더불어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합성수지 제품업계로서는 특히 2002년도 7월부터 중소 기업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되므로써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노동생산성 둔화로 경영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 합성수지업계

예견되어 기업경영에 더한층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폐기물재활용 방안과 친환경성제품 개발연구가 시급한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기술, 고품질시대에 앞장서 있는 생산시설의 자동화투자와 품질경영의 기반을 더욱 성숙시키는 노력과 표준화 규격화로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에도 힘을 보태야 하며 환경보호기능의 강화와 소비자안전 등을 중점으로 각종 인증제도를 획득, 수출시장의 다변화 기술 및 품질의 개선으로 기업역량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생산성의 향상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없이 21세기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살아나가기 어렵다는 위기감속에 국가, 기업, 개인이 모두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무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업계는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확대, 소비구조의 다변화, 생산기술의 혁신적인 변화, 기술집약산업의 발전으로 국내외 시장구조의 변화와 함께 시장개척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속에서 우리업계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기업육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산업이 활발히 지원 육성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합성수지제품 생산량이 연간 천만톤이며 국민 1인당 사용량이 100kg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충분히 살려 우리 업계도 더불어 경제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해 나가게 될것으로 믿습니다.

새로운 2002년도는 세계적인 주요행사인 월드컵대회가 이땅에서 개최되고 지방자치선거와 대선을 치루게 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적인 주요행사에 의한 특수가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들의 대응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묻지 않아도 될 입니다.

이제는 남의 잘못만 탓할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시한번 일깨우고 우리 모두가 거둬 태어나는 주인의 자세로 더 한층 분발을 다짐하여 당면과제를 하나하나 미리 분석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